

미중 무역전쟁으로 흔들리는 중국식품시장

베이징지사

양국의 팽팽한 관세 줄다리기 전쟁

-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전쟁은 지난 6월 15일 미국이 중국제품 1,102개를 제재 품목으로 확정하고, 7월 6일부터 818개 품목에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며 촉발되었다. 이에 중국은 즉각 미국제품 659개에 25%의 관세를 부과했고, 양국 간의 무역전쟁은 전면전에 돌입하게 되었다.
- 7월초 미중 무역전쟁은 다소 진정국면에 들어가는 듯 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미국이 중국제품에 약 2,000억 달러(약 224조원) 규모에 달하는 관세 10%를 인상했고, 이에 중국이 8월 3일 미국제품 5,400개 품목에 관세 인상을 발표하면서 다시 격화되기 시작했다.

무역전쟁의 후폭풍은 중국식품시장으로

- 중국의 미국제품 제재 리스트에 대두, 밀, 옥수수, 소고기, 위스키 등 농식품이 대거 포함되면서 중국 식품시장에 일정부분 영향을 끼치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국산 농식품을 원재료로 식품추출물을 제조하던 중국 식품첨가제시장이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 중국이 관세를 부과한 미국산 식품첨가제 원료의 수입 단가가 상승하면서 현재 중국 식품업체는 브라질 등의 기타 국가로 수입노선을 다변화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단기간 내에 수입선을 변경하기에는 현실적인 제약이 많아 원가상승이 불가피한 상황이며, 중국산 가공식품의 가격이 덩달아 상승 압력을 받을 전망이다.

모니터링 통해 파급효과 주시해야

- 현재 진행 중인 미중 무역전쟁의 양상은 '미국의 중국산 전자제품 제재'와 '중국의 미국산 농산물 제재'로 요약할 수 있다. 중국 식품업체가 일정부분 영향을 받고 있지만, 제재품목이 대두, 밀, 옥수수 등 원물에 국한했다는 점에서 아직은 식품첨가제시장만 위기가 거론되고 있다.
- 제재를 받는 미국산 농산물이 한국의 대중 주력품목인 가공식품과 거리가 있다는 점에서 미중 무역전쟁이 한국의 대중 농식품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수준이다. 오히려 향후 중국이 수입관세 인상을 미국의 가공식품까지 확대한다면, 한국의 대중 수출에는 일정부분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향후 미중 무역전쟁의 전개 양상에 대해 지속적이고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